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3. 22 (月)



**경제이슈**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안정세 유지  
2월 청년 실업률 10년 만에 최고치

**경영노트**

근로자 고령화에 대한 BMW의 대처법

**사회트렌드**

사탕세, 高지방식품세  
아이패드와 소파(SOFA)

**차이나 리포트**

중국 ‘이주(蟻族, 개미족)’가 무엇인가?

**저널브리프**

<논어>가 제시하는 이상형 인간, 군자(君子)

**洗心錄**

유방이 항우를 이긴 까닭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안정세 유지

- 美 노동부 발표 자료(18일)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과 동일
  - 상승률 추세 :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전월대비 각각 0.2%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상승세를 나타내던 소비자 물가는 2월 상승세가 멈추며 전월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근원물가 :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
  - 물가 상승 억제 요인 : 대형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하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물가 상승을 억제한 요인으로 작용
-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낮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저금리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

□ 2월 청년 실업률 10년 만에 최고치

-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0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10% 기록
  - 실업률 증가 : 2월 실업자는 116.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만 명 증가하며 두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은 4.9% 기록
  - 실업률 증가 원인 :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경기 회복에 따른 구직자들의 기대감 상승으로 구직활동이 증가하여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 15~29세 청년층 실업률 : 2009년 12월 7.6%에서 2010년 1월 9.3%로 급등하였고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월 10.0%를 기록하며 200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1,638.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하는 청년층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민간부분의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한 청년 실업률은 당분간 높을 것으로 전망

□ 근로자 고령화에 대한 BMW의 대처법<sup>1)</sup>

- 독일의 자동차 메이커 BMW는 근로자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 도출을 위하여 시험 조직을 구성하고 테스트를 실시함
  - 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 2007년 당시 39세였던 공장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10년 후인 2017년에는 47세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현재 평균 나이 47세의 근로자로 구성된 시험 조직인 ‘2017 라인’을 구성하고 업무 강도가 가장 센 작업을 부여함
- 테스트 결과 회사는 근로자의 고령화가 생산성을 하락시키지만, 이는 다른 변수의 조정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림
  - 실제 비교 분석 결과 새로 구성된 ‘2017 라인’은 이전의 낮은 연령대로 구성된 원래 조직에 비해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결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관리, 작업 환경과 같은 변수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 도출됨
- 이후 고령 근로자를 고려하여 공장 환경과 공정의 개선 작업을 실시하였고, 1년 만에 근무조 당 제품 생산량이 500개에서 530개까지 증가함

< 근로자 연령 상승에 대한 BMW의 대처법 >

	내 용
아이디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크숍을 통해 체중 부담을 줄이는 바닥으로 교체, 기구 손잡이 변형 등 70개의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2017 라인’에 적용함</li> <li>•또한 공정을 육체적 부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공정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환 업무를 하는 로테이션 근무제를 실시함</li> </ul>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의 개선 작업에는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워크숍 개최 비용 20,000 유로, 실제 개선 비용 20,000 유로가 지출되었음</li> <li>•‘2017 라인’의 인원 42명에 투입된 총 비용은 40,000 유로로 1인당 1,000 유로 미만이 투자되었음</li> </ul>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디어가 적용된 ‘2017라인’은 제품 결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생산성은 연간 7% 향상되어 젊은 근로자와 같은 수준이 되었음</li> <li>•또한 7%에 이르던 질병, 건강 및 재활 등에 의한 결근율이 1년 후에는 2%로 감소하여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낮은 수준이 되었음</li> </ul>

1) 본 자료는 <Harvard Business Review>(2010. 3)의 ‘How BMW Is Defusing the Demographic Time Bomb’을 요약 정리함

□ 사탕세, 高지방식품세<sup>2)</sup>

- 국가재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각국 정부의 세금부과 정책이 천태만상
  - (핀란드) 비만 억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탕과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시켰고, 부가가치세도 인상
  - (덴마크) 과세대상 제품 목록에 담배와 지방이 높은 식료품을 추가
  - (북아일랜드) 애완견 등록비를 10배 인상
  - (영국) 가축 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
  - (프랑스) 환경보호 명분을 내걸고 탄소세 도입을 추진중
  - (그리스) 세금 법안 초안에 그리스 정교회를 세금 대상에 포함
  
- 이런 세금들은 경기 침체, 구제 금융, 경기부양자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공통점이 있음

□ 아이패드와 소파(SOFA)<sup>3)</sup>

- IT업계와 소비자들은 아이패드의 활용성에 주목
  - 아이패드의 시장 타깃이 기존 태플릿PC나 넷북, 스마트폰과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 트렌드 전문 분석기관인 메타트렌드연구소는 아이패드가 ‘홈 모바일 라이프’를 이끄는 ‘소파(SOFA)’ 기기라고 분석
  - e북 사진 영화 등을 보는 데 중점을 뒀고(See, Study)
  - 한손으로 쉽게 사용하는 간편함(Onehanded)
  - 가족 구성원별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족을 한데 묶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Family)
  -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개념(Always connected)

---

2) “세금 쥐어짜기 발상이 기막힐 稅”(문화일보, 2010.3.19) 참조

3) “아이패드로 소파에서 책·영화 즐긴다”(매경, 2010.3.15) 참조

□ 중국 ‘이주(蟻族, 개미족)’가 무엇인가?

- (개요) 사회 격변기를 맞고 있는 중국에서는 최근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이주(개미족)’라는 신생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집중
  - ‘이주’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하였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 계층이 도시와 농촌의 접경지대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모습이 자연계에서의 개미와 유사하여 붙여진 명칭임
  - ‘이주’는 ‘푸얼다이(富二代)<sup>4)</sup>, ‘하이구이(海歸)<sup>5)</sup> 등과 함께 개혁개방과 산아제한정책 실시 이후 출생한 파링허우(八零後)<sup>6)</sup> 세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계층으로 중국 전역에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 (특징) ‘이주’는 고학력, 농촌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 거주 의 공통점이 있음
  - ‘이주’의 출신 지역별 구성을 보면, 농촌과 소도시 출신이 각각 55%와 25%를 차지한 반면, 대도시 출신은 7% 정도를 차지함
  - 이들은 주로 영업직과 요식 서비스 분야에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2,000위안 미만이며,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함
  
- (생성 원인) 도시생활 조건의 우월성은 ‘이주’ 생성의 직접적 원인
  - ‘이주’가 대도시 거주를 고집하는 이유는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배우자 선택과 2세 교육을 위해서도 대도시가 유리하기 때문임
  
- (문제점) ‘이주’의 확산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이들 集居지역에 대한 개조공사와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

4) 푸얼다이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중국 1세대 민영 기업가들의 자손으로 부모세대로부터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계층을 지칭함  
5) 하이구이는 중국어에서 귀소(歸巢) 본능이 강한 바다거북(海龜)과 발음이 동일한 것에서 유래,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부류를 말함  
6) 80년대 이후 출생자로 개혁개방과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개방적, 독립적 사고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세대임

□ <논어>가 제시하는 이상형 인간, 군자(君子)<sup>7)</sup>

-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君子)’라는 이상적 인간형을 제시함
  - ‘군자’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임금(君)의 아들(子)로, 공자는 여기에 열정과 노력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리더의 의미를 부여하였음
- ‘군자(君子)’는 부단히 학습하고 사람들과 두루 친화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포용하는 4가지 특징을 지님

< 이상적 리더 ‘군자(君子)’의 4가지 특징 >

구 분	내 용
학습형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이시습(學而時習)</b>: 공자는 논어에서 ‘평생 학습하는 일이야말로 군자의 가장 기쁜 일이다(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고 말함</li> <li>- 리더는 학습과 실천이야말로 평생의 과업임을 잊지 않음</li> <li>- 공부하는 리더는 미래의 환경을 이해하고 생존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음</li> </ul>
친화형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이불비(周而不比)</b>: ‘남과 두루 친화하고 편당 짓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된 마음이다(周而不比乃君子之公心)’이라는 의미</li> <li>- 리더는 사적인 이익 추구를 삼가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꿈을 제시하는 사람임</li> <li>- 편을 갈라 사람들 차별하고 구별하는 리더는 더 이상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음</li> </ul>
실천형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놀언민행(訥言敏行)</b>: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는 사람이다(欲訥於言而敏於行)’라는 의미</li> <li>- 옛날 사람들은 말이 좀 어눌한 늘변(訥辯)을 군자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군자는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의미</li> <li>- 조직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군자임</li> </ul>
포용형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화이부동(和而不同)</b>: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되 다름(不同)을 인정하는 리더임</li> <li>- 군자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되 나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하지 않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함</li> </ul>

7) “군자의 도(道)는 리더의 도(道) 21세기 뉴 리더십 해답 있다”(Economy Plus, 2010.02) 참조

□ 유방이 항우를 이긴 까닭

유방은 요즘으로 보면 마을 동장 벼슬인 정장(亭長)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초나라 명문가 출신인 데다가 힘은 산을 뽑고 기개는 세상을 덮는다는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 역사상 진시황에 이어 두 번째로 통일국가인 한(漢)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방이 황제에 오른 후 개국공신들과 연회 중에 신하인 고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항우는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추위하는 자에게 옷을 주는 것과 같이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아녀자의 인정은 있으나 착한 이를 꺼리고 공이 있는 자에게 상주는 것을 싫어했으므로 천하를 잃은 것입니다.” 이어 왕릉은 “폐하께서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심이 있사오나 공이 있는 자에겐 반드시 상을 주고, 천하와 함께 이익을 나누셨으므로 천하를 얻으신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유방은 “짐은 장막 안에 앉아 계책을 써서 천리 밖의 승부를 결정 짓는 일은 군사인 장자방을 따르지 못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어김없이 군량을 수송해 병사들을 굶주리게 않게 하는 것은 승산인 소하보다 못하다. 또한 대군을 지휘하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하는 대원수인 한신을 따르지 못한다. 짐이 천하를 얻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인재들을 잘 썼기 때문이다. 항우는 군사인 범증 한 사람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를 놓친 것이다.”

범증은 유방의 군사인 장자방과 더불어 뛰어난 책략가였다. 그러나 항우는 군사인 범증을 유방의 또 다른 군사인 진평의 반간계에 속아 내치게 된다. 영포 역시 항우에 의해 왕의 호칭을 얻는 인물이었지만 항우에게 치욕감을 느끼며 유방에게 귀순해 한나라 건국을 돕는다. 이렇듯 항우는 자신만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신하들을 중요시 여기지 못해 충신들이 떠나가도록 놔두는 우를 범했던 반면에 유방은 신하들을 믿고, 신하들이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게 하였다는 점이 두 인물의 가장 큰 차이였다

“ 지금 무리하게 실행되는 좋은 계획이  
다음 주에 실행되는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

- 조지 패튼(1885~1945) : 미국의 장군